

韓國 寺刹 佛殿의 正面 窓戶形式 變遷에 관한 研究

郭 東 曄

(大眞大學校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金 一 鎭

(嶺南大學校 건축공학과 교수)

1. 서론

韓國 傳統建築연구에서 대상건축물의 建立年代를 精確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건립연대가 기록된 자료가 있으면 모르나, 그렇지 않으면 건물의 세부양식이나 法式, 技法 등을 근거로 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통 목조건축은 건립후 여러차례의 보수와 증수 등으로 인하여 부재가 改替되거나 添削되는 경우가 많아 때때로 건립연대 추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통 목조건축물의 건립연대를 비교적 精確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多數의 근거기준을 복합적으로 채택하고 이들을 상호보완해 가면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대체로 공포형식(첨차, 쇄서, 소로의 형상 및 짜임 등), 가구수법(소술합장, 우미량, 대공형식 등), 세부기법(부재의 맞춤과 이음방식 등), 치목수법(보, 기둥, 서까래 등의 치목) 등이 중요한 건립연대 추정의 근거기준이 되어 왔다.

연대추정의 근거가 되는 이러한 기준들은 대개 어느 한 특정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 類型으로 체계화될 수 있거나 또는 그들의 형태

적 특성이 시기별로 일정한 變化, 變遷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 相互間 先後의 관계가 명확히 가려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시대적인 특성과 變遷樣相을 살필수 있는 또 하나의 建築要素로 창호를 들 수 있다. 건축물의 창호는 古代로 부터 시기가 내려올수록 漸進的으로 개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을뿐 아니라 개폐와 출입의 편리성을 위해 다른 部材들과는 달리 쉽게 변형, 개체될 수 있다는 屬性으로 인해 시기적인 變遷推移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축요소중의 하나이다.

최근 창호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진행된 연구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의 연구는 전통 목조건축의 창호형식을 시기별로 體系化하여 그들의 특성과 변천과정을 정립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진 것들로 이들의 연구결과는 건축물 건립연대 추정의 根據資料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데 커다란 意義가 있다.¹⁾

1) 이러한 연구는 金一鎭의 “한국건축의 영상창에 관한 연구”(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1988)와 鄭明燮의 “조선시대 향교 및 서원건축의 廳房間 개구부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영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2)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표1. 조사대상 사찰 목록

NO	사찰명	건립 및 중수시기	소재지	문화재NO	건립시기의 출처	비고
1	봉정사 극락전	12C 중반	경북 안동군	국 15 호	① ② ④	
2	부석사 무량수전	13C, 1376중건	경북 영풍군	국 18 호	① ② ④	
3	수덕사 대웅전	1308건립	충남 예산군	국 49 호	① ② ④	
4	화암사 극락전	1605중건	전북 완주군	보 663 호	① ② ③ ⑤	복원
5	무위사 극락전	15C (1430) 건립	전남 강진군	국 13 호	① ② ⑤	
6	관룡사 약사전	15C	경남 창녕군	보 146 호	① ② ④	복원
7	개심사 대웅전	1484건립,1644중수,1710중수	충남 서산군	보 143 호	① ② ④ ⑥	복원
8	정수사 법당	1423건립,1458,1552,1588,1667,1689 중수	경기도 인천시	보 161 호	① ② ③ ④	
9	장곡사 상대웅전	1777중건	충남 청양군	보 162 호	① ② ③	
10	장곡사 하대웅전	16C말- 17C초	충남 청양군	보 181 호	① ② ④	
11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1375건립,15C중건	경북 영천군	국 14 호	① ② ⑦	
12	개목사 원통전	1457건립, 17C초 중건	경북 안동군	보 242 호	① ② ④	
13	부석사 조사당	1377중건,1490중수	경북 영풍군	국 19 호	① ② ④	
14	봉정사 대웅전	조선초 건립,1601,1811중수	경북 안동군	보 55 호	① ② ③ ④ ⑧	
15	전등사 약사전	18C건립,1876중수	경기도 인천시	보 179 호	① ② ⑧	
16	신록사 조사당	17C	경기도 여주군	보 180 호	① ②	
17	환성사 대웅전	1635중창,1897삼창	경북 경산군	보 562 호	⑤ ⑥ ⑧	
18	용문사 대장전	16C건립,1670중건	경북 예천군	보 145 호	① ② ③ ④	
19	위봉사 보광명전	17C	전북 완주군	보 608 호	① ⑧	복원
20	개암사 대웅보전	16C말 17C초,(1640)	전북 부안군	보 292 호	① ⑧ ⑫	복원
21	범어사 대웅전	17C (1616-1717)	부산시 금정구	보 434 호	① ④	복원
22	관룡사 대웅전	1617제건,1749중수	경남 창녕군	보 212 호	① ② ③ ④ ⑦	
23	내소사 대웅보전	1633건립,1865중수	전북 부안군	보 291 호	② ⑥ ⑧	
24	선운사 대웅전	17C	전북 고창군	보 290 호	① ②	복원
25	논산 쌍계사 대웅전	1739	충남 논산군	보 408 호	① ③ ⑫	
26	화엄사 대웅전	1649제건	전남 구례군	보 299 호	① ② ③	
27	율곡사 대웅전	17C건립,1732중수	경남 산청군	보 374 호	①	
28	하동 쌍계사 대웅전	1641중건,1649,1735중수	경남 하동군	보 500 호	① ⑧ ⑫	
29	전등사 대웅보전	1621제건	경기도 인천시	보 178 호	① ② ③ ④ ⑦	
30	무량사 극락전	17C	충남 부여군	보 356 호	①	
31	화엄사 각황전	1703중창	전남 구례군	보 67 호	① ② ⑧	
32	급산사 미륵전	1635제건	전북 김제군	보 62 호	① ② ④	
33	법주사 팔상전	1626중건	충남 보은군	국 55 호	① ② ④ ⑤ ⑧	
34	흥국사 대웅전	17C말-18C초 (1690)	전남 여천군	보 396 호	① ② ⑫	
35	안심사 대웅전	1626중수	충북 청원군	보 664 호	⑧	
36	북지장사 대웅전	1623	대구시 공산동	보 805 호	② ⑧	
37	불갑사 대웅전	1608-1623제건,1764,1825중수	전남 영광군	보 830 호	⑫ ⑬	
38	운문사 대웅보전	1653건립,1718중창	경북 청도군	보 835 호	⑤ ⑧	
39	미황사 대웅전	1660중창,1754중수,1982문일괄개조	전남 해남군	보 947 호	⑥ ⑬ ⑮	
40	참당사 대웅전	1724중수	전북 고창군	보 803 호	⑫	
41	법주사 원통보전	1624삼창	충북 보은군	보 916 호	⑧	
42	기림사 대적광전	1629중건	경북 경주시	보 833 호	③ ⑧	
43	귀신사 대적광전	1629,1793,1878,1935중수	전북 김제군	보 836 호	⑮	복원
44	정혜사 대웅전	17C초	전남 송주군	보 804 호	⑮	
45	마곡사 대광보전	1813제건	충남 공주군	보 802 호	⑧	
46	마곡사 대웅보전	1651중건	충남 공주군	보 801 호	③ ⑤ ⑧	
47	법주사 대웅보전	1624중건,1894중수	충남 보은군	보 915 호	② ⑤ ⑧	
48	승림사 보광전	17C건립,1819중수	전북 익산군	보 825 호	③ ⑧	복원
49	대비사 대웅전	1685	경북 청도군	보 834 호	③ ⑧ ⑬	
50	은해사 백룡암 극락전	1643건립,1831보수	경북 영천군	보 790 호	⑨	복원
51	급산사 대적광전	18C	전북 김제군	보 476 호	① ②	
52	대구 동화사 극락전	조선중기	대구시 도학동	유 11 호	⑨ ⑮	
53	안심사 비로전	1613건립,1842중수	충북 청원군	유 112 호	⑧	복원
54	파계사 원통보전	1605중건,1695중수	대구시 중대동	유 7 호	⑥ ⑧	
55	적천사 대웅전	1664건립,19C중수	경북 청도군	유 152 호	⑭	복원
56	거동사 대웅전	18세기	경북 영천군	유 137 호	⑭	

NO	사찰명	건립 및 중수시기	소재지	문화재NO	건립시기의 출처	비고
57	은해사 대웅전	1847	경북 영천군		④ ⑥	
58	대곡사 대웅전	1605중창	경북 의성군	유 160 호	⑪	복원
59	장육사 대웅전	조선중기	경북 영덕군	유 138 호	⑩	복원
60	불영사 대웅전	1721	경북 울진군	보 1201호	⑩	
61	대둔사 대웅전	1606중건	경북 구미시	유 162 호	⑧	복원
62	용연사 극락전	1728중건	대구 달성군	유 266 호	⑥ ⑧	복원
63	직지사 대웅전	18C	경북 금릉군	유 215 호	⑧	
64	장안사 대웅전	1654중건	경남 양산군	유 118 호	⑥ ⑧	
65	양산 신흥사 대광전	1657건립,1801중수	경남 양산군	보 1120호	⑧	
66	운홍사 대웅전	1731	경남 고성군	유 82 호	⑧	
67	옥천사 대웅전	1657	경남 고성군	유 132 호	⑧	
68	청곡사 대웅전	1612	경남 진주시	유 51 호	⑧	복원
69	안정사 대웅전	1751중건	경남 통영시	유 80 호	⑧	복원
70	백련사 대웅전	1761	전남 강진군	유 136 호	⑥	
71	불회사 대웅전	1798,1808	전남 나주시	유 3 호	⑥ ⑦	
72	백양사 대웅전	1917	전남 장성군	유 43 호	⑥ ⑧	
73	능가사 대웅전	1644중창	전남 고흥군	유 95 호	⑧	
74	진도 쌍계사 대웅전	1697	전남 진도군	유 121 호	⑧	
75	신원사 대웅전	1876	충남 공주군	유 80 호	⑥ ⑧	
76	갑사 대웅전	1604	충남 공주군	유 105 호	⑧	
77	대진 고산사 대웅전	조선후기	대전시 대성동	유 10 호	⑧	
78	월리사 대웅전	조선중기 이전	충북 청원군	유 58 호	⑩	
79	영국사 대웅전	조선후기	충북 영동군	유 61 호	⑧	
80	각연사 대웅전	16C말 17C초	충북 괴산군	유 126 호	⑥	
81	각연사 비로전	16C말 17C초	충북 괴산군	유 125 호	⑥	
82	남해 용문사 대웅전	1666 건립,1703,1735,1773 중수	경남 남해군	유 85 호	⑩	
83	성주사 대웅전	1681중건,1817중수,최근문열골교계	경남 창원시	유 134 호	⑥ ⑧	
84	웅석사 대웅전	1736중건,1899중수	경남 진주시	유 141 호	⑦	
85	구룡사 대웅전	18C (1706)	강원 원주군	유 24 호	⑥ ⑩	
86	영은사 대웅전	1805중건	강원 삼척시	유 76 호	⑥ ⑧	
87	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1647창건,1750,1821중수	강원 속초시	유 14 호	⑧	
88	문수사 대웅전	1834재건	전북 고창군	유 51 호	⑥ ⑧	
89	상주사 대웅전	1762중수	전북 옥구군	유 37 호	⑧	
90	불지사 대웅전	조선후기	전북 군산시	유 117 호	⑧	
91	천황사 대웅전	조선후기	전북 진안군	유 17 호	⑧	복원
92	완주 송광사 대웅전	1857재건	전북 완주군	유 70 호	⑧	
93	임실 신흥사 대웅전	18세기	전북 임실군	유 112 호	⑩	
94	선국사 대웅전	1779	전북 남원시	유 114 호	⑥	
95	천은사 극락보전	1774재건	전남 구례군	유 50 호	⑥ ⑧	
96	선암사 대웅전	1825재건	전남 순천시	유 41 호	⑤ ⑧ ⑩	복원
97	순천 동화사 대웅전	1696	전남 순천시	유 61 호	⑥	
98	대구 동화사 대웅전	1727중창	대구시 도학동	유 10 호	④ ⑥ ⑧	
99	강진 정수사 대웅전	1644	전남 강진군	유 101 호	⑩	
100	보경사 대웅전	1743중수	경북 포항시	문화재자료231 호	⑩	

(범례)

- ① : 신영훈 편저, 국보-사원건축편, 예경산업사, 1986
- ② : 신영훈, 한국의미-사원건축편, 중앙일보사, 1990
- ③ :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문화재대관, 대학당, 1992
- ④ : 정인국, 한국건축 양식론, 일지사, 1988
- ⑤ : 김일진, 한국건축의 영상장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8
- ⑥ : 김봉현,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⑦ : 개별 사찰 문화재안내문 (사료 및 목서명에 의해 건립시기가 밝혀짐)
- ⑧ : 개별 사찰 문화재안내문 (구조양식을 통해 연대추정)
- ⑨ : 각종 건축 조사보고서
- ⑩ : 문화재지정 조사보고서 및 문화재 관리대장
- ⑪ : 신영훈, 한국고건축단장 상, 경문사, 1975
- ⑫ :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출판부, 1996
- ⑬ :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고건축
- ⑭ : 배병선, 다포계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3
- ⑮ : 신영훈, 국보중보판-사원건축편, 예경산업사, 1990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즉 사찰 불전을 대상으로 하여 정면 柱間에 시설되어 있는 창호형식의 시대별 특성과 시기적 先後關係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우선 우리나라 사찰불전의 정면 창호형식을 조사·분석하여 체계화한 다음 이들을 시기별로 나열하여 변천과정을 추적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부수적으로 이들을 건립연대 추정의 編年指標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以前의 흔적을 토대로 復元作業이 적극적으로 병행되었다. 복원은 改變된 건축물의 모습을 건립 당시의 것으로 되돌리는 작업으로 建築樣式의 변천을 연구할 때는 필히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찰의 불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첫째, 우리나라의 사찰은 현존 전통건축물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유구들이 남아있어서 시대적인 建築構造 傾向을 잘 살필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불교의 思想, 儀禮와 儀式의 변화등으로 불전 내부공간의 이용방법이 바뀔에 따라 창호형식도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창호의 변천과정을 체계화하는 데는 좋은 사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 불전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좋고 학술적인 가치가 높아 국보, 보물, 지방 유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것 중에 100개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²⁾ 그러나 연구를 진행해감에 따라 정면이 單間인 3개소의 건물과,³⁾ 연구의 분류형식에 속하지 않은 창호형태를 가진 2곳의 건물⁴⁾, 그리고 범주사 팔상전⁵⁾이 연

구의 일관성을 위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총 94개의 건물이 분석되어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이 중 20개소는 정면의 창호들에서 개변된 흔적이 발견되어 원상으로 복원한 후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正面柱間중 하인방과 창방 사이에 시설된 창호를 분석의 범위로 삼았는데, 창호의 형태나 살짜임, 맞춤 등 개별창호의 특성보다는 정면 全柱間에 창호가 설치된 형식이나 개폐방법 등에 주로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2. 연구를 위한 基礎的 考察

2-1. 韓國佛敎의 特色

우리나라에 불교가 최초로 전래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중국을 통해서였다. 곧이어 백제와 신라에 전파된 불교는 왕실과 귀족들의 지원을 받아 국가적인 호국신앙으로 완성되었고 다시 佛國土思想과 現實淨土思想을 基底로 한 대중서민의 일반화된 생활불교로 정착되어⁶⁾ 민족불교 형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 후 삼국이 통일되면서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불교의 禪思想이 유입되기는 하였지만 각 종파간의 뚜렷한 구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학이 크게 발전하였다. 上求 菩提 下化衆生의 교리를 내세워 대중의 구제를 목표로 삼고 있던 이러한 대승불교의 발전은 재래 토속신앙적 요소를 습합하면서 通佛敎의인 성격과 密敎的인 성격을 동시에 갖춘 한국 특유의 불교로 완성되기에 이르렀다.⁷⁾ 따라서 통일후의 불교는 정치적인 동기가 약

2) 금산사 대적광전은 1986년 소실되어 최근 再建되었지만 燒失前의 사진과 도면이 남아있어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3) 어간과 협·퇴간의 창호가 구성되어 있는 3칸 이상의 건물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單間건물인 신록사 조사당, 북지장사 대웅전, 관룡사 약사전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였다.

4) 양산 신홍사 대광전(5쪽의 어간문중 오른쪽 3쪽은 분합

들어열개, 왼쪽 2쪽은 분합 여단이이고, 좌퇴간은 3분합 들어열개, 우퇴간은 3분합 여단이문이다.) 과 전도 쌍계사 대웅전(어간에 양개문이 달리고 양 퇴간에는 3분합 여단이 달려있다.)은 연구의 편리상 제외하였다.

5) 범주사 팔상전은 목탑양식의 건물이고, 가운데 불전을 중심으로 하여 4면에 동일하게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 정면을 설정하기도 어려웠다.

6) 김영태, 한국 불교사 개설, 경서원, P17, 1993

7) 김영태, 전계서, P17, 1993

해지고 개인적인 비중으로 점차 옮겨져 사찰 건립의 목적이 국가안보의 기원에서 개인적이고 가족적이며 종교적인 차원으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⁸⁾

고려시대의 불교 또한 삼국시대처럼 國敎로 신봉되어 결국은 護國의 성격과 現世利益의 신앙경향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시 불교는 귀족사회 혹은 농경사회에 대한 불교적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념적인 불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여 실천적인 불교를 지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儀禮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⁹⁾ 신라이래 고려초기까지 舊習을 전승하면서 연등회와 팔관회 그리고 화엄법회의 형태로만 존재하던 의례는 여러가지 國難을 당하게 되는 중기이후에는 통일된 國論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護國經典에 의한 法會로 전개 발전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武臣亂 이후 불교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12세기 중반까지 왕실과 문벌귀족의 지지 아래 권위를 누리던 개경주변의 교중 사찰들이 몰락하고 13세기 이후에는 지방의 중·하층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종교 결사 운동이 일어나 신선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결사운동 이후 지방에서는 중하류층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불이 활발하게 되었는데 주로 염불을 외우며 기도하는 淨土信仰의인禮佛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¹⁰⁾

고려시대의 불교가 불교의 대중화 시기였다면 조선시대의 불교는 한마디로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민중불교의 시대였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崇儒抑佛의 정치이념으로 인하여 당시의 불교는 교학의 부진과 교단의 쇠퇴 등 역사적 시련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도덕적 윤리규범으로 채택된 유교는 양반 계급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 생활실천면에 치중

하였기 때문에 그 한계성이 있었다. 불교가 지니고 있는 내세적 사상의 종교적 특질은 사후 세계와 관련되어 인간의 내면생활의 욕구를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민계급을 기저로 하여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이때의 불교는 대중적 민중불교에 바탕을 둔 의례불교로 전개되어 불교의 서민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 당시 귀족 중심의 호국불교에서 서민 중심의 민중불교로 성격을 달리하고 儀禮佛敎化됨에 따라 이전에는 제한되었던 俗人들의 主佛殿 출입이 허용되고¹¹⁾ 또한 主佛殿內에서 행해지는 의례들이 늘어남으로써 불전의 형태가 이들 행사에 적합하도록 바뀌어 가게 되었다.

2-2. 朝鮮時代 以前의 佛殿과 窓戶

불교가 전래된 직후 사찰은 인도불교의 사리신앙 도구로서의 상징적 위치인 탑을 중심으로 營建되었으나, 6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金堂이 사찰의 중심적인 위치로 자리하게 되었다.¹²⁾

삼국이 통일된 이후 고려초기까지의 불전 형태는 거의 大同小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古代사찰의 遺址와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建築遺構등을 통해 개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이 시기의 사찰불전은 정면이 3칸에서 9칸, 측면은 2칸에서 5칸까지로 알려지고 있으며¹³⁾ 대개 內陣柱가 있어 外陣空間과 內陣空間으로 구획되었고 바닥 마감재료는 전돌이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당시의 불전은 단지 부처님이 거처하시는 집으로 인식되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었고 일부 승려들에 한해서만 출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형태를

8) 대한건축학회편, 한국건축사, 대한건축학회, P233, 1996.9

9) 홍용식, 한국 불교의 밀교적 특색, 만다라, P91, 1995

10) 대한건축학회편, 전세서, P376 - P377

11) 김정기, 고고미술-고려시대 목조건축, 한국미술사학회, P1, 1987.12

12) 김성우, 고구려사지를 중심으로 고찰한 5세기 전후 불사계획의 변화, 건축역사연구 제 9집, P15, 1996.6

13) 김동현, 고고미술-통일신라시대의 목조건축 양식, 한국미술사학회, P28, 1984. 9

떡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예불은 주로 건물의 앞 마당에 法席을 차려 야외에서 진행 되었고¹⁴⁾ 불전 내부에서는 불단을 중심으로 繞匝하는 행위¹⁵⁾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창호형태는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울주군 농서면 중산리 출토의 塼과 통일신라시대 각종 浮屠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것들을 통해 본 통일신라시대의 창호 형식은 어간의 창호가 모두 兩開板門이고 협간에는 대칭되게 살창을 두고 있는데 문과 창에 높이차를 두어 문은 높고 창은 문보다 낮게 나타내고 있다.¹⁶⁾ 이러한 창호는 신라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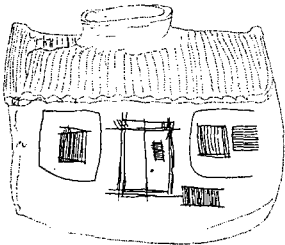


그림 1. 신라 家型土器

家型土器에서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신라의 木塔에도 동일한 창호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¹⁷⁾ 현존하는 봉정사 극락전의 정면창호 그리고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면 창호와도 동일한 형태임을 볼 때 고대로부터 사용되어온 창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12세기 중반 이후에는 무신란의 영향으로 禪宗이 득세하면서 불전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 이는 선종의 의례가 예전 교종에서 처럼 염불이나 하면서 탑들이 혹은 佛像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정진하

거나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전은 내부에 신도들을 수용하기 위해 외부로 향해 개방적으로 변화되고 불전 가운데에 위치하던 불단이 뒷벽으로 물러나면서 불단 앞의 공간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띄게 된다.

조선조에 이르러 불전의 개방화는 더욱 가속화 된다. 즉 당시 사찰에서는 중·하류층 신도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들 모두를 불전내부에 수용치 못하게 되자 외부 마당에서 의례를 들이는 일이 잦아졌다. 따라서 불전은 마당을 향해 정면 全間이 개방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면의 창호도 불전기능에 맞게 全間을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점차 변화하게 되었다.

3. 正面 窓戶形式의 分類 考察

대상건물의 정면 창호형식을 어간과 협·퇴간에 설치되어 있는 창호¹⁸⁾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어간에 출입이 가능한 문이 설치되어 있고 협·퇴간에는 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와 어간이 문이고 협·퇴간 또한 문(어간 門 + (협)퇴간 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분류하고 다시 창과 호의 형태별로 세분화하여 고찰하였다.

3-1. 어간 門 + (협)퇴간 窓 형식

(1) 여단이 板門 + 살창

어간에 兩開 여단이 板門을 설치하고 협간이나 퇴간에 살창을 설치한 경우이다. 조사대상 사찰중 이러한 형식의 창호를 가진 불전은

14) 대한건축학회편, 전계서, P349
 15)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P111
 16) 김동현, 전계서, P77
 17) 주남철, 고고미술- 목조탑과의 연구, 한국미술사학회, P8,1984.9

18) 평상시 출입이 불가능한 들어열개 독창과 창틀의 중간에 1개 혹은 2개의 설주를 세우고 각각의 창을 들어열개로 구성한 2,3면 들어열개 독창, 그리고 창턱 하부에 머름중방을 두어 다른 창호보다 문턱을 높게 구성한 여단이는 창으로 구분하였고, 평상시에도 출입이 가능한 분합들문과 분합여단이문 그리고 문지방이 낮게 설치된 여단이는 문으로 구별하였다.

봉정사 극락전¹⁹⁾과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부석사 조사당²⁰⁾ 등이 있고 부석사 무량수전의 배면창호²¹⁾도 이 형식에 속한다.

이 형식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봉정사 극락전 (12세기 중반)은 정면 3칸, 측면 4칸 주심포 맞배지붕집으로 우리나라 현존 건물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건물은 비교적 소규모의 감실형 건물로 주위를 土壁으로 밀폐하고 정면 어간에는 신방목이 달린 문얼굴에 兩開 판장문을 달았으며, 좌우 퇴간에는 살창을 달아 빛을 받아들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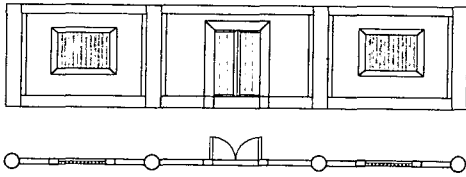


그림2. 여단이 판문 + 살창 형식
(봉정사 극락전 : 94. 8 필자실측)

또한 이 형식에 속하는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15세기)은 정면 7칸 측면 3칸 맞배지붕집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에 속하며 一說에는 14세기 고려말에 지어진 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²²⁾ 원래 건물의 용도는 정확히 밝혀지지

19) 1972년 극락전의 해체 수리공사때 前面의 창방과 하인방에서 창호를 달았던 舊材의 흔적이 발견되어 이를 바탕으로 현재와 같은 창호형식으로 복원되었다. (문화재관리국, 봉정사 극락전 수리공사 보고서, P92 P162, 1992)

20)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과 부석사 조사당의 어간 출입문은 여단이 살문이 달려 있으나 신방목을 갖춘 고식의 문틀형태를 볼 때 문짝이 후대에 개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원래는 판문이었으리라 짐작되어 이 형식으로 분류 한다.

21) 부석사 무량수전의 정면 창호는 후대에 한 번 개체되었고 원래의 모습은 배면 창호와 같았으리라는 것이 통설이다.

(신영훈, 한국의미-사원건축, P218, 1990 과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P387, 1996)

22)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문화재대관-국보편, P238, 1992

않았으나 後代에 영산전으로 變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산전의 정면 어간에는 봉정사와 동일하게 신방목 위에 문틀을 따로 세웠고 문은 3분합의 井字살문이 달려있다. 그러나 이 분합살문은 후대에 改替된 것이며 원래는 板門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어간을 제외한 次夾間은 土壁으로 밀폐되었고 次次夾間과 퇴간만 봉정사 극락전과 같은 형태의 살창이 달려 있다.

또 하나의 예로 부석사 조사당(1377년)을 들 수 있다. 조사당은 원래 부석사에 住錫하셨던 祖師님들의 肖像을 보존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주심포 맞배지붕집이다. 이 건물 역시 정면 어간에는 신방목을 들인 문틀에 兩開세살문이 달려있으나, 원래는 天王像이 그려진 판문이 설치되어 있었다.²³⁾ 양 퇴간에는 마찬가지로 살창을 달고 내부에는 여단을 수 있는 兩開板門을 설치하였으나 後代에 附設한 것으로 보인다.

부석사 무량수전(13세기)의 정면 창호는 후대에 개체된 것으로 원래는 어간에 신방목이 있는 문얼굴에 兩開 판장문이 달리고 협간에만 살창이 시설되어 있는 배면의 창호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⁴⁾ 따라서 최초 무량수전의 정면창호는 봉정사 극락전의 창호와 동일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2) 여단이 살문 + 2,3連 들어열개 獨窓

이 형식은 각 柱間에 독립된 1개 혹은 2개의 설주를 세워 간살을 등분하고 나뉘어진 柱間에는 필요에 따라 窓과 戶를 구분하여 설치한 형식을 일컫는다.

이 형식에 속하는 건물은 수덕사 대웅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의 두 예밖에 없다. 그러므로 비록 單間이어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지만 이 형식의 어간과 같은 형식의 관룡사 약사전²⁵⁾과 맹씨행단을 참고자료로 서술하였

23) 신영훈편저, 국보-사원건축편, 예경산업사, P214, 1986

24) 주 21) 참조

25) 관룡사 약사전의 창호는 현재 4분합 여단이문이 달려 있으나, 이는 후대에 개체된 것이다. “조선고적도보”

다.

수덕사 대웅전(1308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 맞배지붕집으로, 건립연대가 정확히 알려진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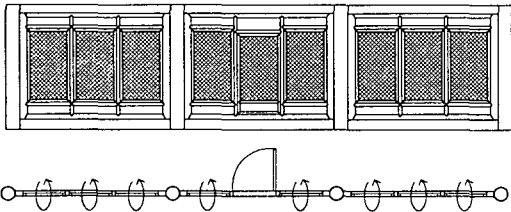


그림3. 여닫이 살문 + 2,3連 들어열개 獨窓 형식
(수덕사 대웅전 : 94. 8 필자실측)

대웅전은 정면 3柱間중 어간의 간살을 2개의 독립된 설주로 3등분한 후 가운데에는 외여닫이 굽널 교살문을 설주에 들쳐귀로 붙여 달았고, 양측으로는 잇대어 들어열개 獨窓을 달았으며, 어간을 제외한 양 퇴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설주를 세워 간살을 3등분한 후 들어열개 獨窓을 각 각 門眉 상부에 들쳐귀로 달았다. 그리고 어간 門의 상부와 어·퇴간 獨窓의 상·하부에는 공통적으로 머름을 배풀었다.

부석사 무량수전(13세기)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창호를 찾아볼 수 있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으로 지어진 이 건물의 정면창호는 원래의 모습이 아니고 배면창호와 같았으리라는 것은 전술한 바다. 그러나 수덕사 대웅전과 관룡사 약사전 그리고 맹씨행단등 麗末鮮初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다수 건물에서 이와 동일한 형태의 창호형식을 찾아 볼 수 있어 현재의 창호는 무량수전이 兵禍를 입어 14세기에 중수될 당시에 개체되었던 창호로 생각된다.

무량수전의 창호는 정면 5칸중 어간과 양협간을 동일하게 하고 퇴간만 다르게 꾸몄는데,

의 사진과 정인국의 “한국건축사 양식론(P40)”에 실린 도면을 참조하면, 정면이 단간인 건물로 이전의 창호 형태가 부석사나 수덕사의 어간 창호와 그 형식이 동일하다.

어간과 협간에는 2개의 독립된 설주를 세워 간살을 3등분한 다음 가운데에는 좌,우설주에 들쳐귀로 兩開 굽널井字살문을 달고 문의 좌우에 잇대어서는 井字살 들어열개 獨窓을 설치 하였으며, 兩 退間에는 하나의 설주로 2등분한 柱間에 어간의 창과 형태가 같은 2짝 들어열개 獨窓을 배풀었다. 또한 수덕사와 마찬가지로 문의 상부와 獨窓의 上·下部에는 머름을 두어 마감 하였다.

이러한 창호구성은 수덕사 대웅전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다만 무량수전이 5칸이기 때문에 어간과 협간을 같은 형식으로 하여 兩開門을 내었다는 점과 兩 退間에 하나의 설주를 세움으로 해서 2짝의 들어열개 獨窓이 설치된 점만이 다를 뿐이다.

한편 改替되기 이전의 관룡사 약사전(15세기) 창호도 이 형식에 속한다. 정면과 측면이 單間인 이 건물의 정면 출입문 구성은 부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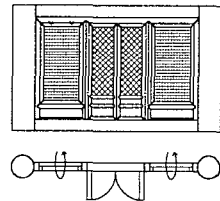


그림4. 복원된 관룡사 약사전 창호
(정인국, 한국건축 양식론, P40 에서발췌)

무량수전 어간의 문형식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정면 單間을 2개의 설주를 세워 3등분하고 가운데에는 兩開 굽널 교살문을 설주에 들쳐귀로 달아 열게 하였고 양측에 잇대어 井字살의 들어열개 獨窓을 단 형식인데, 다만 독창의 하부에만 머름을 배풀었음이 다르다. 이와같은 유형은 주척건축인 맹씨행단(고려말)의 대청 전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맹씨행단의 창호는 대청의 前面 2間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데, 左側柱間을 독립된 2개의 설주로 3등분하여 문과 들어열개 獨

窓을 조합하여 달았고 3등분한 右側柱間은 들어열개 獨窓을 각각 門眉에 돌쩌귀로 달았으며, 문의 상부와 독창의 상·하부에는 머름을 두었다.

(3) 분합들문 + 들어열개 獨窓

이 형식의 창호는 어간에 분합들문이 설치되고 협·퇴간에는 형태는 같으나 '들어서만 개폐할 수 있는 들어열개 獨窓이 설치된 형식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형식은 충남 서산의 개심사 대웅전(1484건립,1644,1710중수)과 관룡사 대웅전(1617) 그리고 갑사 대웅전(1604) 등 3개소의 건물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상건물의 실측조사중 화암사 극락전(1605), 위봉사 보광명전(17세기), 대곡사 대웅전(1605), 대둔사 대웅전(1606), 청곡사 대웅전(1612), 범어사 대웅전(17세기) 등에서 정면 어간과 협·퇴간의 창호를 웃인방에 창호를 달았던 돌쩌귀 자국이 발견되어 이전에는 분합들문 + 들어열개 獨窓 형식의 창호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원하여 조사한 20개의 창호중 무려 6개의 창호와 현존하는 3개의 창호를 포함한 총 9개소의 창호가 이 형식에 속한다는 것을 볼 때 이 유형의 창호가 한 때 적지않게 사용되었던 한 형식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 형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개심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맞배지붕집으로 정면의 어간과 퇴간 모두 형태가 같은 교살창호이다. 그러나 어간의 창호는 4분합 들어열개로 하여 평상시 출입이 가능한 문으로 구성하였는데 반하여, 兩 退間에는 3짝의 들어열개 獨窓을 달았다. 개심사의 이러한 창호는 문들의 풍화상태로 보아 1484년 건립 당시의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1644년 혹은 1710년 중수시에 개체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룡사 대웅전도 어간에 4분합 들어열개 굽널 띠살문이 달려 있는 반면 양 퇴간에는 2짝으로 된 들어열개 정자살 獨窓이 달려 있다. 이들은 퇴간 들

어열개 창호의 수가 다를뿐 동일한 형식의 창호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갑사 대웅전은 정면의 柱間이 5칸인 관계로 어간과 양 협간에 4분합들문이 시설되어 있고 兩 退間에만 2개의 들어열개 獨窓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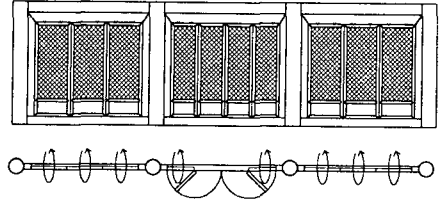


그림5. 분합들문 + 들어열개 獨窓 형식
(개심사 대웅전 : 94. 8 필자실측)

시설되어 있는것이 다르다. 이는 갑사 대웅전의 간살이 어간과 협간이 동일하게 넓고 퇴간이 좁기 때문에 퇴간을 제외한 어간과 협간을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암사 극락전, 위봉사 보광명전과 대둔사, 대곡사, 청곡사, 범어사의 대웅전등은 돌쩌귀의 흔적을 살펴볼 때 어간에는 분합들문을 달았고 양 퇴간에 3개의 들어열개 獨窓을 달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개심사와 동일한 형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어사 대웅전의 경우에는 들어열개 獨窓의 흔적을 左側柱間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다. 원래 右柱間에도 들어열개 獨窓이 시설되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현재로서 짐작키 어렵다.

(4) 여단이 門 + 여단이 窓

어간에 출입할 수 있는 여단이 살문을 내고 兩 협·퇴간에는 어간과 형태는 같으나 머름 중방위에 크기가 조금 작은 여단이 창을 단 형식이다.

이러한 창호의 모습은 소실되기 이전의 금산사 대적광전(18세기)과 현존하는 歸信寺 대적광전(1629,1793중수,1878중수,1905중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금산사 대적광전은 1986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 최근에 예전의 모습대로 재건된 건물로 정면 7칸 측면 4칸의 다포계 팔작집이다.

이 건물의 창호형식은 정면 7칸중 어간에는 안으로 여닫을 수 있는 兩開 교살문을 두어 출입이 가능토록 하였고 어간을 제외한 협간 및 퇴간은 창의 하부에 머름을 두어 창턱을 높인 양개 교살창으로 구성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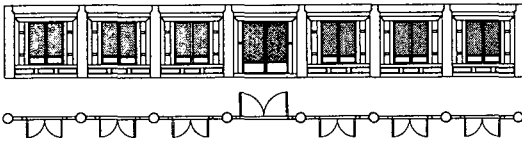


그림6. 여닫이 문 + 여닫이 창 형식
(금산사 대적광전 : 한국건축 양식론에서 발췌)

반면 귀신사 대적광전의 창호는 후대에 改修되어 이러한 형식을 갖춘 예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면 5柱間 모두 창호가 달려 있는데 원래는 어간과 협간에만 창호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즉 어간에는 출입이 가능한 兩開門이 달리고 양 협간에만 창틀하부에 머름을 베풀어 창턱을 높인 들어열개 獨窓이 시설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에 左夾間의 들어열개 창호만 여닫이로 바꾸고 회벽으로 밀폐되어 있던 양 퇴간에 새로 여닫이창을 내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따라서 귀신사 대적광전의 창이 들어열개 獨窓에서 여닫이窓으로 후에 改替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음을 감안할 때 건립초기부터 여닫이문 + 여닫이창 형식으로 구성한 것은 금산사 대적광전이 유일한 예이다.

3-2. 어간 門 + (협)퇴간 門 형식

(1) 분합들문 + 분합들문

26) 한국문화재 보호협회가 발행한 문화재대관-보물 1(1992)에 실린 귀신사 대적광전의 사진에 양 퇴간이 심벽으로 밀폐되어 있었던 이전의 모습이 남아있다.

어간과 협·퇴간에 모두 평상시 출입이 가능하면서 때에 따라 全間을 개방할 수 있는 분합들문을 설치한 형식을 말하며 표-2의 사찰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형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등사 대웅전은 정면 3칸에 모두 3분합의 들어열개 급널 교살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표-2.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 사찰 일람표

사찰명	건립시기	사찰명	건립시기
위봉사(복원전)	17세기	장육사(복원후)	조선중기
화암사(복원전)	1605중건	용연사(복원후)	1728
대곡사(복원전)	1605	응석사	1736
범어사(복원전)	17세기		
정수사 법당	1423건립 후6중창	안정사(복원후)	1751
봉정사 대웅전	조선초기 1601중수	마곡사 대광보전	1813
전등사 대웅전	1621	구룡사	18세기
장안사	1654	적천사(복원후)	1664
승림사(복원후)	17세기	영국사	조선후기
장곡사 하대웅전	16세기말 17세기초	임실 신흥사	18세기
개암사(복원후)	16세기말 17세기초 (1640)	천황사(복원후)	조선후기

용어범례

- * 복원전 : 돌쩌귀의 흔적은 있으나 이전 창호의 모습대로 복원치 않은 현재의 창호
- * 복원후 : 돌쩌귀의 흔적을 토대로 하여 이전 창호의 모습으로 복원한 형태

몇번의 중수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대웅전의 배면에 건립 당시의 것이라 여겨지는 영쌍창이 그대로 남아있고 문틀의 풍화상태로 보아 정면의 창호 또한 원래의 것이라 여겨진다.

한편 17세기에 건립된 위봉사, 화암사, 대곡사, 범어사는 창호틀의 웃인방에 난 돌쩌귀 흔적으로 보아 당시에는 앞서 언급한 분합들문 + 들어열개 獨窓 형식의 창호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後代에 改替되어 분합들문 + 분합들문의 창호형식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범어사를 제외한 3개소의 건물 배면에도 전등

사 대웅전과 같은 형식의 영쌍창 유구가 동일하게 남아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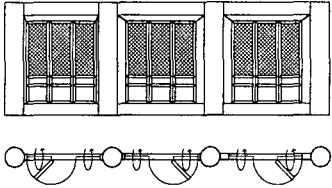


그림7.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
(전등사 대웅전 : 94. 8 필자실측)

반면 승림사, 개암사, 용연사, 장육사, 적천사, 안정사, 천황사 등 7개소의 사찰은 과거에는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의 창호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후에 제각기 다른 형식으로 변하게 된 건물들이다.

복원된 20개소의 창호중 7개의 창호가 최초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로 이 형식이 한 때는 흔하게 사용되어 왔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정수사 법당의 정면 분합들문은 문틀의 풍화상태로 보아 건립될 당시의 것이라 보기가 어렵고 6중창(1689)때에 전면의 마루를 新設하면서²⁷⁾ 改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봉정사 대웅전의 창호 또한 건립될 당시의 것이 아닌데 이는 문틀의 구성과 들찌귀 자국을 보면 알 수 있다. 봉정사 대웅전은 건립될 당시의 것이라 보여지는 문틀의 안쪽에 새로 문틀을 내고 문을 달았으며, 원래의 문틀 상부에는 들찌귀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 형식에 속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정면이 3칸으로 구성되어 각 柱間에는 3분합과 4분합의 창호를 달았는데 반해 정면이 5칸인 마곡사 대광보전만은 5주칸 전체에 동일하게 3분합의 들어열개 굽넛 꽃살문을 달았다. 그러나 장곡사 하대웅전과 천황사 대웅전은 퇴간에 2짝의 창호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兩

開門으로 하지 않고 들어열개 獨窓과 외여단이 문으로 조합 구성하여 들어열개 獨窓의 변형된 예를 보여주고 있어 특이하다.

(2) 분합 여단이門 + 분합 여단이門

이 형식은 건물의 정면 空間에 접어서 열수 있는 3분합 혹은 4분합의 여단이문을 공통적으로 설치한 형식을 말하며 조사된 건물중 이 형식에 속하는 사찰은 표-3과 같이 총 28개에 달하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3. 분합여단이문+분합여단이문 형식 사찰 일람표

사찰명	건립시기	사찰명	건립시기
용연사(복원전)	1728	천은사	1774
승림사(복원전)	17세기	장곡사 상대웅전	1777
장육사(복원전)	조선중기	대비사	1685
적천사(복원전)	1664	홍국사	18세기초
청곡사(복원전)	1612	불회사	1808
무위사 극락전	15세기	성주사	1681중건 1817중수, 최근문일 굴고체
안심사 대웅전	1626	선암사(복원후)	1825
화엄사 대웅전	1649	신원사	1876
은혜사 백홍암(복원후)	1643	순천 동화사	1696
옥천사	1657	남해 용문사	1666
불갑사	1608-1623 1764,1825 중수	보경사	1743중수
파계사 원통전	1695	대전 고산사	조선후기
선운사(복원후)	17세기	백양사	1917
울곡사	17세기 1732중수	미황사	1660,1982 문일굴 개조

이들 중 용연사, 승림사, 장육사, 적천사 등 4곳의 건물은 어간과 퇴간의 창호가 모두 분합들문이었던 것이 후대에 분합여단이로 개체되어 현재 이 형식에 속하게 되었고 청곡사의 경우는 어간 분합들문 + 퇴간 들어열개 獨窓 형식에서 이 형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 되

27) 신영훈, 한국의미-사원건축, 중앙일보사, P233, 1990

었다.

반면 은혜사 백홍암 극락전과 선운사 대웅전 그리고 선암사는 돌쩌귀의 흔적으로 이전의 창호가 이 형식에 속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선운사는 정면 5칸중 어간의 창호는 4분합 여닫이문으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나, 3분합 여닫이문이 달려 있었던 협간과 퇴간은 원래의 문틀 내부에 部材를 덧대어 간살을 줄인다음 양개 여닫이문으로 바꾸어 달아 분합문 + 여닫이문 형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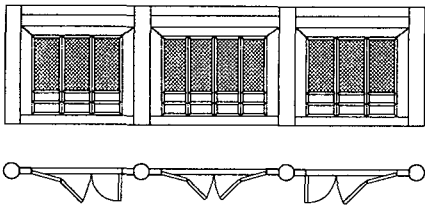


그림8. 분합 여닫이문 + 분합 여닫이문 형식
(대비사 대웅전 : 96. 8 필자실측)

상기의 건물중 비교적 건립시기가 이른 화엄사 대웅전과 옥천사 대웅전 그리고 파계사 원통보전의 문틀은 기둥이나 창방부재에 비해 풍화상태가 달라보여 후대에 한번 창호가 바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무위사 극락전(15세기)도 古色이 짙은 가구나 포작의 결구수법과는 다르게 창호의 치목수법이 거칠어 과연 창건당시의 것인지는 의심스러우며, 안심사 대웅전의 경우에도 건물의 중수시 원래의 3칸 측면이 2칸으로 줄어드는 커다란 改造를 거친 건물로 정면의 창호가 건립될 당시의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3) 분합들(혹은 여닫이)門+여닫이 門

이 형식은 어간에 분합들문이나 분합여닫이문을 달고 협·퇴간에 兩開 여닫이문을 설치한 경우로 조사건물중 총 18개의 건물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중 안정사는 원래 분합들문 + 분합들

문 형식이었으나 후에 퇴간만 여닫이문으로 개체되었고 선운사도 어간의 4분합 여닫이문만이 그대로이고 3분합 여닫이문이 달려있었던 협간과 퇴간은 문틀 양설주의 안쪽에 部材를 덧대어 柱間을 줄인다음 여닫이문으로 바꾸어 달았던 것은 전술한 바다.

또한 안심사의 비로전은 현재 정면 全間에 동일하게 兩開 여닫이문이 달려 있으나 돌쩌귀 흔적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어간에 3분합 여닫이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4. 분합들(여닫이)문 + 여닫이문형식 사찰 일람표

사찰명	건립시기	사찰명	건립시기
선운사 (복원전)	17세기	참당사	1724중수
안정사 (복원전)	1751	운흥사	1731
안심사 비로전 (복원후)	1613건립 1842중수	백련사	1761
개목사 원통전	1457 17세기	상주사	1762
능가사	1644	불영사	1721
마곡사 대웅보전	1651	문수사	1834
무량사	17세기	불지사	조선후기
하동 쌍계사	1641,16491 735 중수	선국사	1779
동화사 극락전	조선중기	월리사	조선중기

이들 대부분의 건물들은 공통적으로 어간보다 협간이나 퇴간의 간살이 비교적 작아 분합문을 달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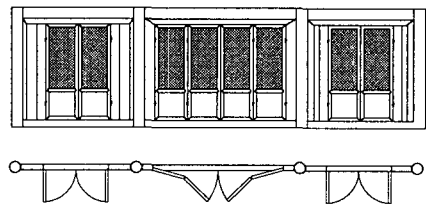


그림9. 분합들(여닫이)문 + 여닫이문 형식
(참당사 대웅전 : 95. 8 필자실측)

특히 마곡사 대웅보전과 하동 쌍계사의 예를

보면 정면 5柱間 중 간살이 같은 어간과 협간은 분합 여닫이문으로 마감하고 그에 비해 간살이 작은 퇴간만 兩開門을 달았다.

그러나 백련사, 상주사, 참당사만은 퇴간의 간살이 비교적 넓음에도 불구하고 문설주 안쪽으로 여유를 두어 부재를 덧대어 달고 兩開門을 설치하였는데, 문틀의 맞춤이나 풍화상태를 볼 때 후에 開修된 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4) 여닫이 門 + 여닫이 門

이 형식은 어간과 협·퇴간에 안이나 밖으로 여닫을 수 있는 문을 설치한 유형으로 조사대상 건물 중 총 23개의 건물이 이 유형에 속한다.

표-5. 여닫이문 + 여닫이문 형식 사찰 일람표

사찰명	건립시기	사찰명	건립시기
안심사 비로전 (복원전)	1613건립 1842중수	화엄사 각황전	1703
개암사(복원전)	17세기 (1640)	용문사 대장전	1670중건
법주사 대웅전	1624	법주사 원통전	1624
기림사 대적광전	1629	논산 쌍계사	1739
환성사	1635중창 1897삼창	대구 동화사 대웅전	1727
운문사	1653	전북 송광사	1857
내소사	1633건립 1865중수	은해사 대웅전	1847
각연사 비로전	17세기초	속초 신흥사	1647창건
각연사 대웅전	17세기초	영은사	1805
금산사 미륵전	1635재건	강진 정수사	1644
정혜사	17세기	거동사	18세기

문의 형식은 대체로 쌍여닫이인 경우도 있지만, 한 柱間에 2짝 이상의 문을 달아 제각각이 독립적으로 열리게 하거나, 혹은 문틀에 접한 문은 개폐할 수 없도록 불박이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같은 문은 닫았을 경우에는 분합문과 그 형태가 같아 열핏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들 중 안심사 비로전과 개암사 대웅전은 당시의 창호가 아니고 한 번 改替된 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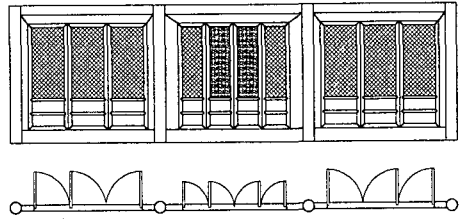


그림10. 여닫이 문 + 여닫이문 형식
(은해사 대웅전 : 95. 8 필자실측)

보인다. 즉 안심사는 문틀 안쪽으로 部材를 덧대어 어간의 간살을 줄인 다음 원래의 3분합문을 양개 여닫이문으로 바꾸어 달았고 개암사는 원래의 분합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문틀에 잇대어 있는 문을 불박이로 처리하고 대신 가운데의 문만 열리도록 개폐방법을 바꾸었다.

이 형식에 속하는 창호들은 대개 법주사 대웅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등과 같이 문의 키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문이어서 둔테에 달 수밖에 없거나, 반대로 전등사 약사전과 같이 건물의 간살이 좁고 처마의 높이가 낮아서 접어 열거나 들어서 열기가 어려운 창호가 대부분이다.

4. 正面 窓戶形式의 變遷體系 考察

前章에서 고찰한 8가지 창호형식들의 造成時期를 살펴볼 때 대략 4단계의 시기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는데,²⁸⁾ 本章에서는 분류된 4단계의 시기에 따라 제 1기 형식, 제 2기 형식, 제 3기 형식, 제 4기 형식 등으로 다시 분류·고찰하여 불전 정면창호의 변천양상을 추적하고자 한다.

28) 1단계 : 고대로부터 麗末線初까지,
2단계 : 고려말에서 조선초기까지,
3단계 : 17세기초에서 17세기말까지,
4단계 : 17세기이후 조선후기까지

4-1. 제 1 기 형식

제 1 기 형식은 어간의 여단이 판문과 퇴간의 살창으로 구성된 창호형식을 말한다.

이러한 제 1 기 형식의 창호는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塼돌과 浮屠 및 家形土器 등에서 그 형태를 다수 찾아볼 수 있어 통일신라 혹은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창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건물 중 가장 건립시기가 빠른 고려시대의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부석사 조사당, 麗末鮮初에 건립된 것으로 보이는 은혜사 거조암 영산전 등 비교적 오래된 건물에서 이 형식의 창호를 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어간 여단이 판문 + 퇴간 살창형식의 제 1 기 창호형식은 고대로부터 널리 사용되어 적어도 고려시대 말 혹은 조선시대 초기까지 계속 사용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창호는 판문과 살창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 추위나 바람을 막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실내에서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수 있게 온돌이나 마루를 시설한 건물에서는 적합치 않은 형식이다. 따라서 현재 불전의 마루하부에 전돌이 깔려 있었던 유구가 발견된 사찰의 불전은 애초 이 형식의 창호가 시설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나아가서 창호지를 사용한 살창호가 사용되기전까지는 이 창호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2. 제 2 기 형식

제 2 기 형식은 14세기 고려말과 조선초기에 걸쳐 나타나는 창호로 수덕사의 대웅전과 같이 어간에 여단이 살문이 달리고 퇴간에는 2,3連 들어열개 獨窓이 시설된 형식을 말한다.

이 형식의 창호는 수덕사 대웅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창건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 형식의 어간

과 같은 구성을 보이는 개구부는 조선초기에 건립된 單間건물인 창녕 관룡사 약사전과 주택건축으로서 고려말에 지어진 아산의 맹씨행단의 대청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창호의 공통점은 柱間에 한, 두개의 독립된 설주를 세워 간살을 나눈 다음, 이들을 연기로 맞추고 창호틀의 상·하부에 머름을 짜는 등 설치할 때 많은 공을 드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치 않은 모습을 한 창호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진 상기 4 곳의 건물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형식의 창호가 과거 어느 한시기에 유행하던 창호의 한 형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상기 4개소의 건물들이 모두 고려말기와 조선초기의 건물들이라는 점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봉정사 극락전의 창호형식에 뒤이어 발생되어 창호지를 이용한 살창호가 등장하면서 형성되었던 창호형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각 柱間에 독립된 설주를 세워 간살을 나누고, 여단이 살문과 독창을 조합·설치한 이러한 창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以前の 봉정사 극락전과 같이 土壁과 살창으로 밀폐되어 있던 정면의 全柱間이 모두 외부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되었으며, 폐쇄적인 창호형태에서 훨씬 개방된 형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3세기에 이르러 불교가 서민중심의 의례불교화되면서 나타난 창호형식으로 생각된다. 즉 12세기 무신란 이후 서민층을 중심으로한 정토신앙적인 기도중심의 의례들이 늘어나 염불과 기도를 위해 불전내부에 출입하는 신도들의 수가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 후 점차 늘어나는 신도들을 불전내부에 수용치 못하게 되자 불전 앞마당에서도 의례를 들이는 일이 잦아지면서 내부공간을 외부로 확장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불전의 前面을 개방하기에 이른것으로 볼 수 있다.

4-3. 제 3 기 형식

제 3 기 형식은 어간 분합들문 + (협)퇴간 들어열개 獨窓형식의 창호를 말한다.

이러한 형식으로 창호를 구성한 불전은 9개소에 이르는데, 이중 개심사를 제외한 8개의 건물들의 건립시기가 17세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심사의 창호들이 기둥이나 다른 部材와 풍화상태가 달라보여 기록에 보이는 1640년 혹은 1710년 중수때²⁹⁾ 개체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개심사의 창호가 이때 개체된것이라 가정한다면 제 3 기 형식의 창호는 모두 1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한편 이 형식의 창호는 수덕사 대웅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은 제 2 기의 창호에서 파생된 형식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수덕사나 부석사의 창호형식에서 가운데에 설치된 설주를 생략한다면 필연적으로 이 형식이 도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설주를 생략하고 나면 설주에 달려 있었던 어간의 兩開門은 左·右의 들어열개 獨窓에 달리어 분합들문 형식이 되고, 협·퇴간의 설주사이에 있던 2,3連 들어열개 獨窓은 그대로 들어열개 獨窓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호의 변천은 3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설주의 소멸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시대적 기술적인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불교는 국가의 抑佛政策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어 중앙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사원의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사찰의 건립은 점차 스님들이나 서민층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예전처럼 공을 들여 사원을 지을 여력이 없어지게 되면서 급기야는 창호에서도 설주가 사라지게 되었으며, 또한 불전 정면全間을 외부로 더욱 개방화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는 협간이나 퇴간으로의 출입을 위해서 설주를 없앴과 동시에 창의 상·하부에 설치되어 있던 머름조차 제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형식으로 창호를 구성한 9개소의 불전 중 개심사, 감사, 관룡사를 제외한 6개소의 건물에서 협간이나 퇴간의 들어열개 독창이 후에 분합들문이나 분합 여단이문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들어열개 독창이 개폐할 때 불편한 점이 있어 건립후 개폐가 편리한 창호형식으로 점차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형식은 수덕사 대웅전의 창호와 같은 제 2 기 형식에서 비롯되어 분합들문 + 분합들문이 발생되던 17세기까지 사용되어 온 형식으로 생각된다.

4-4. 제 4 기 형식

제 4 기 형식은 17세기뿐만 아니라 18세기와 19세기, 그리고 늦게는 조선후기까지도 나타나는 창호형식이다.

3장에서 분류한 창호들 중 이러한 제 4 기에 속하는 형식은 여단이 문 + 여단이 창, 분합들문 + 분합들문, 분합 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분합 들(혹은 여단이)문 + 여단이문, 여단이문 + 여단이문 등 5개의 형식들이다.

17세기 이후에 들어서면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사찰 불전에서는 이와같은 다양한 형식의 창호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³⁰⁾ 이 중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과 분합 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형식은 앞서 고찰한 제 3 기 창호형식에서 변화, 발전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30) 임진왜란(1592-1598)으로 인하여 전국의 사찰이 황폐화 되었으나 전시에 활약한 승군의 공로가 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17세기에 들어 대대적인 사찰의 재건이 시작된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건축기문의 파괴와 17세기 이후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당시의 사찰에서는 이전의 창호형식을 고수하지 않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여단을 수 있는 창호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9) 개심사 대웅전의 정면 4개 기둥중 3개의 기둥이 하부를 동발이음하고 있어 중수의 규모가 상당히 컸었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 4 기의 창호형식중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과 분합 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형식의 창호는 함께 묶어 다시 ㉑형식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형식은 각각 ㉒, ㉓, ㉔형식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㉑형식

㉑형식의 건물중 건립당시부터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으로 창호를 구성한 건물들은 모두 17개소이고,³¹⁾ 분합 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형식으로 창호를 설치한 불전은 18개소로 파악되었다.³²⁾

이들을 건립시기별로 다시 분류하여 보면,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은 17세기³³⁾의 건물이 9개소³⁴⁾, 18세기 건물이 5개소, 19세기 전, 후한 시기의 건물³⁵⁾이 3개소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분합 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형식은 17세기가 7개소, 18세기 4개소, 19세기 전, 후한 시기의 건물이 7개소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17세기에 들어서는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과 분합 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형식의 창호가 동시에 사용되었지만, 18세기 이후에는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의 창호는 설치빈도가 점차 감소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분합 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형식은 17세기에 비해 18세기 이후에도 꾸준히 시설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건립당시부터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으로 창호를 구성한 위의 17개소 건물중 7

개소의 건물들은 후에 다른 형식으로 창호가 개변되었는데 반해, 23개소의 분합 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형식의 불전은 3개소만이 건립 후 창호를 개체한 흔적을 볼 수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의 창호가 분합 여단이문 + 분합여단이문 형식에 비해 여단기가 다소 불편하여 점차 사용을 기피하게 되고 문의 개폐방법을 보다 쉽게 바꾸어 나가면서 18세기 이후로는 그 사용빈도가 급격히 줄게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용연사와 송림사, 장육사, 적천사 등의 건물에서는 건립당시 분합들문 + 분합들문 이었던 것이 후에 개폐방법을 바꾸면서 분합 여단이문 + 분합여단이문 형식으로 개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간의 변천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필요에 의해서 불전의 정면 공간을 완전 개방할 경우, 개폐가 편리한 분합여단이 형식으로 점차 개체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의 창호는 전술하였던 제 3 기의 분합들문 + 들어열개 독창형식에서 변화 발전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위봉사, 화암사, 범어사, 그리고 대곡사 등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불전으로의 출입과 원활한 개방을 위해서 들어열개 독창을 보다 손쉽게 여단을 수 있는 분합들문으로 개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어간과 협·퇴간을 모두 분합 여단이문으로 구성된 형식은 분합들문 + 들어열개 독창에서 발전되어 온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과 함께 17세기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초기에는 사용빈도가 적었으며,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에서 점차 형태를 바꾸어 나가면서 18세기에 들어서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된 창호형식이라 할 수 있다.

(2) ㉒형식

㉒형식은 어간에 분합들문이나 분합 여단이문이 달리고 협간이나 퇴간에는 여단이문을 시설한 경우를 말한다.

31) 총 21개소의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중 위봉사, 화암사, 대곡사, 범어사 등 4개소의 건물은 건립당시에는 분합들문 + 들어열개 독창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2) 총 28개소의 불전중 10곳의 건물을 분석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이들은 문틀에 들쭉거 자국이 남아있어 건립후 개변되었던 것으로 파악된 5곳의 건물(송림사, 용연사, 장육사, 적천사, 청곡사)과 문틀과 창호의 상태로 보아 건립당시의 창호로 보기에는 의심이 가는 5곳의 건물(화엄사, 옥천사, 안심사의 대웅전과 파계사원통보전, 무위사 극락전) 등이다.

33) 조선중기의 건물도 17세기로 분류함.(이하 동일)

34) 1423년에 건축된 정수사 법당의 창호도 이와같은 형식의 창호로 남아있는데, 문틀의 상태로 보아 6중창(1689)때 전면의 마루를 신설하면서 개체 개방된 것으로 보여 17세기에 조성된 창호로 분류하였다.

35) 19세기와 조선후기의 건물들을 이른다.

분석대상 불전중 건립당시에 이 형식으로 창호를 구성한 불전은 모두 16개소³⁶⁾이며, 이들을 건립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17세기 8개소, 18세기 6개소, 그리고 19세기이후 2개소 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의 창호는 거의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형식의 창호를 시설한 건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어간보다 협간이나 퇴간의 간살이 작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간에는 17세기 불전에 널리 쓰이고 있던 분합문을 달았으나, 협간이나 퇴간에는 兩開門을 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건물들의 건립시기와 함께 비추어 볼 때 ㉞형식의 창호는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형식의 분합들문 + 분합들문이나 분합 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형식과 함께 사용되긴 했지만, 시기적으로 선후관계는 명확치 않으며, 오히려 건물의 간살크기와 관련되어 어쩔수 없이 이 형식을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형식

㉠형식은 건물의 어간과 협간 및 퇴간에 모두 여단이문을 시설한 형식으로, 건축당시부터 이 형식으로 창호를 시설한 건물은 분석대상 건물중 총 21개소³⁷⁾에 달한다.

이들 21여개의 불전을 건립시기별로 분류하면 17세기 13개소, 18세기 5개소, 19세기이후 3개소 등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여단이문 + 여단이문 형식 또한 17세기와 18세기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형식은 前章에서 서술하였듯이 시기적인 흐름으로 파악될 것이 아니라 창호의 크기나 처마의 높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즉 키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창호나 건물의 처마가 낮거나 간

살이 좁아서 분합들문이나 분합 여단이문을 설치할 수가 없는 건물들에서 이 형식으로 문을 달았다고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합들문이나 분합여단이문이 널리 사용되었던 시기에도 건물의 크기나 창호의 크기가 여의치 못하면 이 형식으로 문을 달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형식

㉡형식은 여단이문 + 여단이창 형식을 말한다. 이 형식은 연구를 위해 시기적으로 분류된 창호형식의 전체 흐름속에 포함되지 않는 특이한 유형으로 금산사 대적광전이 유일한 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다른 창호형식과의 관련성은 이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5. 결론

한국 사찰 불전의 정면 창호형식을 유형별로 고찰하고 이들의 변천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93개소의 사찰을 대상으로 창호형식을 분석하였다. 이 결과 불전의 정면 창호는 8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이들의 조성시기는 대략 4단계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각 단계별 시기에 따라 창호형식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 1 기 형식은 어간 여단이 板門 + (협) 퇴간 살창형식으로 신라의 家形土器와 塼 그리고 각종 浮屠 등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배면창호), 부석사 조사당,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고려중기와 조선초기에 걸쳐 건립된 다수의 현존 건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형식의 창호는 古代로부터 시작되어 늦게는 麗末鮮初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창호지를 이용한 살창호가 보편화되기 이전에 널리 사용되어 오던 창호형식으로 생각된다.

2) 제 2 기 형식은 고려말 조선초기에 나타

36) 총 18개소의 건물중 선운사와 안정사는 후에 개체된 후 이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건립당시부터 이 형식으로 창호를 갖춘 건물은 16개소이다.

37) 총 23개의 사찰중 후에 창호가 개편된 안심사 비로전과 개암사 대웅전은 제외하였다.

나는 창호로 어간 여단이 살문 + (협)퇴간 2·3連 들어열개 獨窓형식이다.

이 형식의 창호는 13세기에 이르러 불전이 외부로 개방성을 지향하면서 봉정사와 같은 폐쇄적인 창호형식에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제 3 기의 어간 분합들문 + (협)퇴간 들어열개 獨窓형식은 유구의 조성연대로 보아 17세기의 것으로 보이며 어간 여단이 살문 + 협간 2,3連 들어열개 獨窓형식에서 변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즉 불전 정면全面을 완전히 개방시키고 협간이나 퇴간으로의 출입을 위해 설주를 없애고 창의 상·하부에 설치되어 있던 머름마저도 제거하면서 형성되었던 창호로 생각된다.

4) 제 4 기 형식은 17세기뿐만 아니라 18세기와 19세기 그리고 늦게는 조선후기까지도 나타나는 창호형식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는 사찰 불전에서 다양한 형식의 창호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은 17세기에 주로 널리 사용되었고 18세기 이후에는 사용빈도가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있는 반면 보다 개폐가 용이한 분합 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형식은 18세기 이후 까지도 꾸준히 사용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조성된 이후 개변된 흔적이 남아있는 상당수의 창호들을 보면 제 3 기 형식인 분합들문 + 들어열개 독창은 제 4 기에 들어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으로 변화, 발전되었고, 점차 개폐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다시 분합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형식으로 바뀌어 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분합들문 + 분합들문 형식과 분합 여단이문 + 분합 여단이문 형식은 제 3 기형식의 분합들문 + 들어열개 독창형식 계열에 속하는 창호로 개폐방법을 점차 바꾸면서 변화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 4 기 형식의 창호중 분합 들(혹은 여단이)문 + 여단이문 형식과 여단이문 + 여단이문 형식의 창호도 17세기와 18세기 그리고 19세기에 걸쳐 고른 사용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제 3 기형식이나 제 4 기의 다른 창호형식과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고, 다만 불전 정면의 간살이나 문의 크기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문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1. 신영훈, 국보-사원건축편, 예경산업사, 1986
2. 신영훈, 한국의 미-사원건축편, 중앙일보사, 1990
3. 한국문화재보호협회, 문화재대관, 대학당, 1992
4.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88
5. 신영훈, 한국고건축단장 上, 경문사, 1975
6.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출판부, 1996
7. 문화재관리국, 한국의 고건축 시리즈,
8. 대한건축학회편, 한국건축사, 대한건축학회, 1996
9. 김영태, 한국 불교사 개설, 경서원, 1993
10. 홍윤식, 한국불교의 밀교적 특색, 만다라, 1995
11. 김일진, 한국건축의 영쌍창에 관한 연구, 동국대박사학위논문, 1988
12. 김봉렬, 조선시대 사찰건축의 전각구성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3. 배병선, 다포계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3
14. 김정기, 고고미술-고려시대 목조건축, 한국미술사학회, 1987.12.5
15. 김동현, 고고미술-통일신라시대의 목조건축양식, 한국미술사학회, 1984.9.15
16. 주남철, 고고미술-목조탑과의 연구, 한국미술사학회, 1984.9.15
17. 김성우, 고구려사지를 중심으로 고찰한 5세기 전후 불사계획의 변화, 건축역사연구 제9집, 1996.6
18. 拙稿, 맹씨행단 대청 전면창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 6 권 제 2호, 1995.12